

집단간 지위, 성별사회정체성 및 지위관련성이 집단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

김금미[†] · 한덕웅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집단의 지위에 따라서 집단간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정체성과 지위관련성이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2(집단의 지위 : 고/저)×2(성별사회정체성 : 고/저)×2(지위관련성 : 지위유관/지위무관)의 완전무선 실험설계를 사용하여 112명의 대학생에게 실험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지위가 높으면 지위관련성에 관계없이 성별사회정체성 수준에 따라서 내집단편애를 보이지만, 집단의 지위가 낮으면 집단의 지위와 관련이 없는 차원에서만 성별사회정체성 수준에 따라서 내집단편애의 분배가 나타난다는 가설을 검증했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집단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분배차원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내집단에 더 많이 분배하지만 집단의 지위와 관련이 없는 차원에서는 내집단 분배에서 성별사회정체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집단의 지위가 낮은 조건에서는 지위와 관련없는 차원에서만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보다 성별정체성이 높을 때 내집단편애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서 삼원상호작용에 관한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사회정체성이론 및 선행연구들과 연결지어서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의 의의를 논의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장래 연구의 과제도 함께 검토하였다.

주제어 : 내집단 편애, 집단지위, 사회정체성이론, 성별사회정체성, 지위관련성, 내외집단 분배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에 유리한 반응을 보이는 내집단편애(in-group favoritism)현상은 널리 알려졌다. 본 연구는 성별이 관련된 집단간 관계 상황에서 집단의 지위, 성별사회정체성 수준, 그리고 자원을 분배하는 근거의 지위 관련성이 내집단편애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소집단 상황과 달리 실제 생활에서 내집단편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별(Brown, 2000, 277~280쪽) 집단간 관계에서 가설을 검증하였다.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통해서 자기평가를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려는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한덕웅, 2002). 그러므로 '내집단편애'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더 호의적인 정서, 평가, 행동의도 및 행동을 보이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금미·한덕웅, 2002). 즉,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내집단편애는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Brewer & Miller,

* 이 논문은 김금미의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 교신저자 : 김금미(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imttokki@hanmail.net)

1996).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편애 현상은 자주 나타난다. 30년 동안 발표된 집단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합분석(meta-analysis)한 Mullen, Brown 및 Smith(1992)의 연구에서 내외집단간 평가를 비교해 본 결과에 따르면 연구들 가운데 75%에서 내집단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내집단편애가 나타났다.

최소집단 상황과 실제 집단상황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최소집단 상황에서도 내집단편애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집단간 범주화의 결과로 집단간 관계에서 편애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회범주로 구분하는 최소집단 상황에서도 집단간 차별이 나타나는 현상은, 집단간 관계에서 이해의 갈등이 집단간 차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현실갈등이론과 구분되는 측면이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 따라 최소집단 상황에서 내집단편애를 보이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한편 최소집단 상황에서 수행된 내집단편애 연구에 대해서 현실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한덕용, 2002). 실제로 Mullen 등(1992)의 통합분석에서는 범주화의 실제성 수준, 즉 실험실에서 범주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는지 혹은 실제 집단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높은 지위 집단과 낮은 지위 집단의 성원이 보이는 내집단편애 정도가 달랐다. 즉, 인위적이고 사후적인 집단을 사용하여 집단범주화하였을 때는 실제 집단을 이용했을 때와 달리 높은 지위 집단의 성원이 내집단편애를 강하게 보였다.

본 연구와 관련지어 보면 사회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성별 범주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최소집단 상황에서 나타났던 집단의 지위 및 다른 변인들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최소집단 상황과 실제로 의미있는 성별집단상황에서 가설을 반복해서 검증하게 되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생활에 의미를 지니는 성별 범주로 집단간 관계가 형성된 조건에서 내집단 지위에 따라서 집단간 분배가 달리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최소집단 상황과 실제집단에서 범주화에 따라서 내집단편애가 나타나는지 알아본 연구들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관되는 결과를 얻은 연구들(Jetten, Spears, Hogg, & Manstead, 2000; Jetten, Spears, & Manstead, 1996)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이론의 주장과 일관되게 최소집단과 실제집단에서 집단간 지위에 따른 내집단편애 현상에서 지위관련성과 성별사회정체성이 미치는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김금미와 한덕용(2002)의 연구에서는 최소집단 상황을 조작하기 위하여 점추정과제를 사용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지위(고/저), 집단범주화(집단경쟁/개인경쟁) 및 지위관련성(지위유관/지위무관)을 조작하고 이에 따라서 집단간 분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 바 있다.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는 집단의 높은 지위와 관련되거나 혹은 관련되지 않은 차원일 때 모두 개인경쟁조건보다 집단경쟁조건에서 내집단편애를 보이지만, 집단의 지위가 낮으면 집단의 지위와 관련이 없는 차원일 때만 개인경쟁조건보다 집단경쟁조건에서 내집단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이 분배한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개인경쟁조건은 개인간 경쟁 결과에 따라 보너스점수를 받고 집단경쟁조건은 집단간 경쟁 결과에 따라 보너스점수를 받도록 조작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지위가 높은 집단의 성원들은 집단범주화나 지위의 관련성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내집단에 배분하였으나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는 지위와 관련없는 차원에서만 내집단편애를 보였다. 본 연구는 성별 집단범주화 조건에서 지위, 성별 사회정체성 및 지위 관련성의 관계가 최소집단 상황을 다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반복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종이나 성별 관계를 다룬 실험연구들 가운데 남성을 우세한 집단으로, 여성을 열등한 집단으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지위 관계를 가정한 연구도 있다(Branscombe & Wann, 1994). 한편 Jetten 등(1996, 2000)의 연구에서는 실제 집단간 범주를 사용하더라도 자유대학교 암스테르담 대학의 사회지위를 사용하지 않고 각 대학의 성원들이 연구에 몰입하는 수준으로 지위를 조작하였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을 각각 내외 집단의 구성원들로서 연구에 참여시켰지만 실제 집단의 지위는 대학 자체 이외의 다른 차원을 이용하여 조작되었다. 즉 실제 대학간 사회지위와 독립되게 연구

에 몰입하는 수준을 사회지위의 차원으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지위와 성별의 관계를 다루면서 남녀 범주를 사용할 때 남성과 여성을 각각 우세하거나 열등한 집단으로 연구하기보다 비교가 가능한 성별과 독립적인 차원에서 상대적 지위가 각각 높거나 낮은 조건을 조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하면 실제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지위를 다루면서도 연구에서 성별과 지위를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 집단과 최소집단 범주를 다른 연구들에서 일관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결과들을 명확히 해석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남녀 성별 범주를 사용하지만, 실험 상황에서 남녀가 항상 집단간 관계로 범주화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

이 논리에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범주를 이용하여 내집단편애나 혹은 외집단편애 현상이 남녀 집단간 관계에서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각각 나타나는 내외집단편애를 설명하기 위하여, 내집단의 성별사회정체성 수준과 아울러 집단의 지위와 분배 차원의 관련성 수준에 따라서 내집단 분배에 달리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들이 설정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과제와 중요한 가설이 도출된 배경을 설명하기로 한다.

집단의 지위와 지위관련성에 따른 내집단편애

Tajfel과 Turner(1986, 19쪽)는 집단의 지위를 평가 차원에서 비교한 집단의 상대적 위치라고 정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집단간관계에서 내집단에 유리하도록 지위의 차이를 만들려고 하거나 혹은 내집단의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간 차별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이 논리로 보면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의 지위에 따라서 내외집단을 차별하는 과정이나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내집단의 사회지위에 따라서 내외집단 차별 현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논의하기로 한다.

집단간 관계에서 높은 지위를 지니는 집단의 성원들은 내집단의 사회정체성을 더욱 우월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낮은 지위의 외집단을 차별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집단 관계에서 좋은 지위에

처한 집단의 성원은 이미 외집단보다 우월하게 집단간 차이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정체성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사회지위가 높은 집단의 성원들이 외집단에 대해서 집단간 차별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Ellemers, Doosje, van Knippenberg, 및 Wilke(1992)의 연구에서는 집단의 상대적 규모, 지위 및 집단간 경계의 침투가능성 수준이 다르면 집단정체성과 내집단편애가 달리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 수준과 집단성원으로서 집단을 가지었다고 보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 집단간 경계가 모호하여 집단간 침투가 가능하면 높은 지위의 소수에 해당하는 집단성원들이 다른 집단의 성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집단편애를 보였다. 또한 Mullen 등(1992)의 통합분석 결과와 Sachdev와 Bourhis(1987, 1991), 그리고 Ellemers, Kotekaas 및 Ouwerkerk(1999)의 실증연구에서도 높은 지위 집단의 성원이 낮은 지위 집단의 성원보다 더 심한 내집단편애를 보였다.

한편 낮은 지위를 지니는 집단의 성원이 보이는 내집단편애 혹은 외집단 편애에서도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 내집단의 지위가 낮으면 지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낮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내집단에 유리하고 지위가 높은 외집단에 불리한 방향으로 차별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외집단에 비해서 내집단의 열등한 지위가 객관적이고 합당한 준거에 의해서 명백한 사실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내집단에는 불리한 방향으로 이른바 '외집단편애'를 보일 수도 있다(Brewer & Brown, 1998; Brewer & Miller, 1996, 91~92쪽). Reichl(1997)의 실증연구의 결과에서도 낮은 지위 집단의 성원들이 높은 지위 집단의 성원들보다 덜 차별적이었다.

실제로 지위가 낮은 집단의 성원인 경우에는 내집단의 낮은 지위가 자신의 정체성에 명확히 부정적 의미를 지니지만 이 지위를 지니게 된 배경에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비록 내집단의 긍정적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욕구가 강하더라도 이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집단간 분배나 평가를 하기에는 현실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지위가 높은 집단의 성원에 비해서 지위가 낮은 집단의 성원이 내집단편애를 보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명백한 집단간 지위 차이에 위배되는 분배는 개인이 지니는 내면의 공정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내집단편애를 보이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집단을 정의하는 중요한 차원에서는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Paéz, Martínez-Taboada, Arróspide, Insúa, & AyeStarán, 1998, 214쪽), 다른 상황에서는 외집단의 우월성을 수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집단간 분배의 차원이 지위와 관련되는지 여부는 내집단편애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의 지위가 높으면 지위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서는 내집단편애를 보일 명백한 근거가 있어서 정당화가 가능하므로 내집단편애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체로 집단간 관계에서는 내집단의 지위가 높더라도 지위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서 집단간 사회비교를 유발하면 내집단의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높으므로 내집단의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유지하고자 외집단에 대해서는 차별과 오감을 표출하게 된다(Mackie & Smith, 1998). 또한 지위가 높으면 분배를 결정하는 기준이 지위와 관련이 없는 차원에서도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내집단편애를 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높은 지위 집단의 성원들은 외집단과 사회비교하는 차원의 관련성에 따라서 내집단 분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내집단의 지위가 외집단보다 낮고 집단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서 자원을 분배할 때는 집단의 낮은 지위가 자원의 분배에서 합당하고 객관적인 준거가 되므로 지위와 관련이 없는 차원에서 분배 할 때보다 내집단편애를 덜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내집단의 지위가 낮지만 지위와 관련이 없는 차원을 기준으로 분배하게 되면 지위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서 분배할 때보다 내집단편애를 추구하려는 동기를 표출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위와 관련이 없는 차원에서 자원을 분배하게 되면 내집단의 지위가 외집단보다 낮더라도 내집단의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높은 내집단편애를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집단의 지위, 성별사회정체성, 및 지위관련성에 따른 내집단편애

인간은 긍정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으므로(Karasawa, 1991),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집단의 성원인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지니고 있는 높은 지위는 자신의 자존심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에는 성별사회정체성의 수준에 관계없이 내집단편애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위가 낮은 집단의 성원인 경우에는 집단에 대한 성별사회정체성 수준에 따라서 내집단편애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간 관계에서 내외집단의 성원들이 모두 이성들로 집단이 구성되어 두 사회범주가 교차되어 독립적으로 조작되고(cross-categorization) 내집단의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집단에 대한 성별사회정체성이 약화되고 개인정체성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므로 이 조건에서는 내집단의 지위가 낮지만 집단간 관계에 기초하여 내집단에 분배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는 개인정체성이 현저해지므로 개인적 향상전략을 쓸 수 있다. 한편 내집단이 동성으로 구성되고 외집단은 이성으로 구성되어서 집단에 대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으면서 내집단의 지위가 낮다면 내집단의 정체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내집단의 낮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분배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별사회정체성에 따라서 내집단의 지위가 낮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에 더 많이 분배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런데 성별사회정체성의 수준이 집단의 지위와 지위 관련성의 상호작용에 서로 달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위가 높은 집단의 성원은 이미 획득하고 있는 높은 지위 때문에 정당한 근거만 있다면 내집단편애가 가능해진다. 이 때 지위가 높은 내집단이 단일 성별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고 외집단은 내집단 성원들과 성별이 서로 다르다면 집단 경계가 특출해지므로, 지위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서 분배를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모두 성별사회정체성 수준이 낮을 때보다 내집단편애를 더 많이 보일 것이다. 고지위 집단의 경우에는 이미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집단간 분배에서 외집단 성원에게 아량을 베풀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실제 내집단

편애를 보일지 여부는 사회정체성의 강도에 달려 있고 이는 범주경계의 명확성 정도로 조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지위 집단의 내집단편애는 지위관련성보다는 내집단성별구성으로 조작되는 성별사회정체성 수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고지위조건에서는 지위 관련성에 관계없이 내집단이 동성으로 구성되고 외집단이 이성으로 설정된 경우에, 내집단이나 외집단이 모두 혼성으로 설정되었을 때보다 집단의 경계가 이중으로 뚜렷해지므로 내집단에 더 많은 점수를 분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의 지위가 높은 성원들은 지위관련성에 관계없이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은 조건보다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조건에서 내집단에 더 많은 분배를 한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반면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에는 분배의 차원이 지위와 관련되는 정도와 사회정체성에 따라서 분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성원이 지위가 낮은 내집단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거나 혹은 지위가 높은 외집단을 선호해서 외집단편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내집단에 대해서 성원이 낮은 사회정체성을 지닌 경우에 나타날 것이다.

한편 내집단이 지위가 낮더라도 사회정체성은 높은 상태로 유지한 채 이미 안전하게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는 외집단에 호의를 보임으로써 내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전략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내집단에 대해서 사회정체성이 높은 조건이면서 지위와 관련된 차원에서 분배를 할 때 내집단의 낮은 지위를 인정하고 내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집단편애를 보인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집단의 지위와 성별사회정체성 그리고 지위관련성에 따라서 내집단편애나 혹은 외집단편애가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위와 관련있을 때는 내집단이 동성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제에 관련하여 저지위가 명확하고 합당한 조건에서 내집단에 더 많이 분배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저지위 집단의 성원이 지위가 관련된 조건에서 분배를 할 때 성별사회정체성에 따라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위와 관련이 없는 차원에서 분배하는 조건이 되면 내집단이 동성으로 구성되어서 범주경계가 더 뚜렷해짐에 따라 성별사회정체성이 더 강화되므로 내집단 정체성의 향상을 위

해 내집단에 점수를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내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 나타나는 집단간 분배현상들을 가설로서 설정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집단의 과제 수행 결과가 외집단보다 좋지 않아서 지위가 낮으면 부적 정체성을 지니게 될 수 있는데, 이 조건에서 교차범주화되면 더 개인정체화되므로 집단의 지위와 상관없이 높은 차원에서 내외집단에 보상을 분배하게 되면 내집단의 낮은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분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내집단의 지위가 낮으면서 특히 지위와 관련된 차원에서 분배하는 조건에서는 성별사회정체성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이 내집단편애가 낮게 나타난다. 반면 내집단의 지위가 낮으면서 집단간에 이성으로 구성되어서 내집단 성원의 성별사회정체성 수준이 높으면 부적 지위가 더 특출해져서 부적 정체성이 높아진다. 이 조건에서 특히 지위와 관련되지 않은 차원일 때 내외집단에 분배를 하게 되면 내집단의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내집단편애를 표현하기 좋으므로 내집단에 더 많이 분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집단의 지위가 낮으면서 지위와 상관성이 없는 차원에 따라서 보상을 분배하는 조건에서는 내집단이 단일 성별로 구성되어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 때, 내집단이 혼합 성별로 구성되어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보다, 내집단편애가 더 높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서론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내집단의 지위 주효과: 내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보다 지위가 높을 때 내집단에 더 많이 분배할 것이다.

가설 2. 내집단의 지위와 지위관련성의 이원상호작용효과: 내집단의 지위가 높을 때는 지위유관조건과 지위무관조건간에 내집단 분배에서 차이가 없지만,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는 지위유관조건보다 지위무관조건에서 내집단에 더 많이 분배할 것이다.

가설 3. 내집단의 지위, 사회정체성 및 지위관련성의 삼원상호작용효과:

가. 내집단의 지위가 높으면 ① 지위유관조건에서는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내집단에 더 많이 분배하고, ② 지위

무관조건에서도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내집단에 더 많이 분배할 것이다.

나. 내집단의 지위가 낮으면 ① 지위유관조건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와 높을 때 내집단 분배에 차이가 없고 ② 지위무관조건에서는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내집단에 더 많이 분배할 것이다.

방 법

실험절차

실험은 1) 성별사회정체성 조작 → 2) 창의성 과제 실시 → 3) 지위 조작 → 4) 지위관련성이 높거나 낮은 조건에서 내외집단의 분배 순서로 진행되었다. 남자 2명과 여자 2명으로 구성된 총 4명의 참여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면 먼저 ID번호가 들어 있는 봉투를 준다. 이 때 남자 참여자는 항상 1121번을 받고 여자 참여자는 항상 1124번을 받게 된다. 실험 절차를 이유삼아 다른 사람이 번호를 보지 못하게 하도록 당부했으므로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번호를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참여자들을 각자 컴퓨터 앞에 앉게 하고, 컴퓨터를 통해 이 실험은 '성별과 창의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집단유형을 임시로 P유형과 Q유형으로 구분하겠다고 언급하고 개인이 P유형인지 Q유형인지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시해주었다. ID번호를 이용하여 내집단의 성별이 동성이나 혼성으로 구성되도록 조작하였다.

이어서 앞으로 창의성과제목을 집단으로 수행하게 되고, 집단의 과제 수행 수준에 따라서 실험참가 점수 외에 보너스 점수를 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보너스 점수는 지금 실험에 참가한 4명 가운데 P집단이나 Q집단 중 더 잘한 한 집단에 속한 2명만 받게 되고, 더 못한 집단의 성원은 보너스 점수를 못 받게 되므로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한 다른 성원의 수행수준 및 다른 집단의 수행수준이 모두 보너스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어서 그림 5개를 차례대로 30초씩 제시하고 각 그림의 제목을 창의적으로 작명하여 1분씩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 응답하도록 창의성 과제를 하였다. 그리고 과제를 마친 후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창의성이 높은 제목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집단별로 알려 준다고 설명하였다. 이 때 컴퓨터 자판에 익숙하지 못해서 미처 응답을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 컴퓨터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채점 기준에 의해서 집단의 창의성 점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모든 집단 성원이 완벽하게 잘 응답해야만 좋은 집단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약 10초 후에 실험에 참여한 전체 집단 중에서 각 집단의 창의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어서 지위를 조작하였다.

이어서 참여자와 함께 참가한 총 4명의 ID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성원이 과제를 수행한 응답 결과를 토대로 창의성과 관련이 높은 확산적 사고능력이나 혹은 관련이 없는 의리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점수를 나누도록 하였다. 이 때 내집단 성원과 외집단 성원의 ID를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분배의 대상이 되는 외집단 성원은 항상 참여자의 성별과 다른 성이 되도록 고정시켰다. 그림과 함께 제시한 제목은 실제로 실험에 참가한 다른 피험자가 응답한 결과가 아니었고, 사전에 석사 및 박사과정생 12명이 작명한 제목을 참고하여 마련한 내용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P, Q 집단 내에서 각각 순서상쇄(counter-balancing)하여 제시하였다. 이어서 조작을 점검하는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

모두 8개 조건마다 14명씩 총 112명의 대학생(남자 52명, 여자 60명)을 무선할당하였다. 참여자는 S대학에서 심리학개론이나 교양강좌로서 심리학과 관련있는 과목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인데, 이들은 실험에 참여한 대가로 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설계

2(집단의 지위 : 고/저) × 2(성별사회정체성 : 고/저) × 2(지위관련성 : 지위유관/지위무관)의 완전무선설계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인

집단의 지위 가운데 높은 지위 조건에서는 '당신이

속한 P(Q) 집단이 창의성 과제를 수행한 결과는 전체 실험 참여 집단 중 상위 21(19)%에 해당합니다. 당신의 상대 Q(P)집단이 창의성 과제를 수행한 결과는 전체 실험 참여 집단 중 하위 19(21)%에 해당합니다.'라고 알려주어서 지위가 높은 조건을 조작하였다. 낮은 지위 조건에서는 '당신이 속한 P(Q) 집단이 창의성 과제를 수행한 결과는 전체 실험 참여 집단 중 하위 19(21)%에 해당합니다. 당신의 상대 Q(P)집단이 창의성 과제를 수행한 결과는 전체 실험 참여 집단 중 상위 21(19)%에 해당합니다.'라고 알려주어서 지위가 낮은 조건을 조작하였다. P집단과 Q집단의 명칭이나 내집단의 지위를 조작할 때 19% 혹은 21%로 알려주는 과정에서 실험 참가자마다 차례대로 고지위나 저지위에 속하도록 각각 순서를 상쇄하여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작방법은 선행연구(김금미·한덕용, 2002)의 조작방법과 동일하다.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컴퓨터 화면으로 각 성원의 성별과 집단 소속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ID 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속 집단과 그 집단의 성원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집단 소속	P(Q)	P(Q)	Q(P)	Q(P)
I D	1121	1122	1123	1124
성 별	남	남	여	여

제시된 예는 남성 참여자가 P(Q)집단이고 여성 참여자가 Q(P)집단이 되는 예이다. P(Q)집단은 남성집단이고 Q(P)집단은 여성집단이 되므로 각 집단은 동성으로만 구성된다. P집단과 Q집단의 집단명칭은 순서를 상쇄하여 제시하였다.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컴퓨터 화면으로 각 성원의 성별과 집단 소속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ID 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속 집단과 그 집단의 성원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집단 소속	P(Q)	P(Q)	Q(P)	Q(P)
I D	1121	1122	1123	1124
성 별	남	여	남	여

제시된 예는 남성 참여자가 P(Q)집단이고 여성 참여

자가 Q(P)집단이 되는 예이다. P(Q)집단과 Q(P)집단에는 남녀가 1명씩 속해 있으므로 각 집단은 혼성으로 구성된다.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조건과 마찬가지로 P집단과 Q집단의 집단명칭은 순서를 상쇄하여 제시하였다.

지위관련성 가운데 지위유관조건에서는 '심리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과제를 수행할 때 창의성과 확산적 사고 능력은 매우 관련되어서 상관이 높다고 합니다. 즉, 대체로 창의성이 높으면 여러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고 창의성이 낮으면 같은 관점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창의성 과제의 수행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토대로 확산적 사고의 능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실험에서 P(Q)집단의 1명과 Q(P)집단의 1명이 실험에 참여하여 창의성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응답을 보고 이 과제를 수행한 사람이 얼마나 확산적 사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당신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확산적 사고 능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십시오.'라고 지시하여 지위와 관련성이 있는 조건을 조작하였다.

지위무관조건에서는 '심리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과제를 수행할 때 창의성과 의리있는 정도는 전혀 관련되지 않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즉, 대체로 창의성이 높거나 낮는데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의리있는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창의성 과제의 수행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토대로 의리가 표현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실험에서 P(Q)집단의 1명과 Q(P)집단의 1명이 실험에 참여하여 창의성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응답을 보고 이 과제를 수행한 사람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당신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더 의리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십시오.'라고 지시하여 지위와 관련성이 없는 조건을 조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러한 지위관련성 조작방법은 선행연구(김금미·한덕용, 2002)와 동일하다.

종속변인 : "P 집단"과 "Q 집단"에 속하는 익명의 두 성원에게 총 100점의 점수를 분배하도록 하고 이 점수를 사용하여 내집단편에 수준을 측정하였다. 먼저 100점의 점수를 내집단과 외집단의 성원에게 나누어서 분

배지에 각각 기입하고, 두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되는지 확인한 뒤, 분배지를 각 참여자의 책상 앞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봉투에 넣도록 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익명으로 반응을 한다고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봉투 안에 미리 분배지를 몇 개 넣어놓고 피험자보다 앞서 실험에 참가했던 다른 사람들의 응답이 이미 봉투 안에 들어 있어서 현재 참여자의 응답을 실험자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해주었다. 모두 5개의 그림에서 판단한 내집단 분배치들을 평균하여 개인의 종속측정치로 삼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조건들을 비교하여 내집단에 분배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내집단편애가 크다고 해석했다.

결과 및 논의

독립변인의 조작효과

집단지위의 조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신이 속한 집단의 창의성 과제 수행 결과는 다른 집단보다 얼마나 잘했습니까?'에 대하여 '1(매우 적게)~4(중간)~7(매우 많이)'의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이 측정치들을 각각 2(집단의 지위)×2(성별사회정체성)×2(지위관련성)의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집단의 지위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집단의 지위가 높은 조건의 참여자들($M=5.46$)은 집단의 지위가 낮은 조건의 참여자들($M=2.53$)보다 자신들이 더 잘 했다고 응답했다, $F(1, 104)=140.02, p<.0001$. 또한 '당신은 창의성 과제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까?'('1: 하위 10%'~'5: 중간'~'9: 상위 10%')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2(집단의 지위)×2(성별사회정체성)×2(지위관련성)의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서 집단의 지위가 높은 조건의 참여자들($M=7.73$)은 집단의 지위가 낮은 조건의 참여자들($M=2.25$)보다 자신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F(1, 104)=538.51, p<.001$. 따라서 집단의 지위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또한 성별사회정체성의 조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집단에 속한 다른 사람의 성별을 질문하였다.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조건에 속한 27명의 남성은 남성으로, 29명의 여성은 여성으로 응답했다. 또한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은 조건에 속한 남자 25명 전원이 여성이라고

응답하였고, 여자 31명 전원이 남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실제로 사회정체성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조건과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은 조건간에 다음 문항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다른 P(Q)집단 성원들과 가깝게 느꼈다', '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다른 P(Q)집단 성원들과 친밀감을 느꼈다', '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내 자신이 P(Q)집단의 성원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꼈다', '나는 다음에 다시 이 실험에 참가해도 이 집단에 속했으면 좋겠다'의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김금미·한덕용, 2001)에 대하여 0(매우 적게)~3(중간)~6(매우 많이)점 척도에 응답한 결과들을 평균하여 사회정체성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사회정체성이 더 높은 조건($M=3.17$)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은 조건($M=2.64$)보다 사회정체성의 점수가 더 높았다, $F(1, 105)=7.30, p<.008$, 이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이었다. 그러므로 성별사회정체성의 조작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위관련성의 조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창의성과 의리있음이 얼마나 관련되는지, 분배를 할 때 과제를 한 사람의 확산적 사고능력이 분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배를 할 때 과제를 한 사람의 창의성에 따라 분배가 얼마나 좌우되는지에 대하여 각각 '1(매우 적게)~4(중간)~7(매우 많이)'의 7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각각의 측정치들을 2(집단의 지위)×2(성별사회정체성)×2(지위관련성)의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세 문항 모두 지위관련성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지위유관조건의 참여자들($M=2.75$)보다 지위무관조건의 참여자들($M=2.26$)이 창의성과 의리있음이 덜 관련된다고 응답하였다, $F(1, 104)=4.55, p<.05$. 또한 지위무관조건의 참여자들($M=4.52$)보다 지위유관조건의 참여자들($M=5.06$)은 분배를 할 때 과제를 수행한 사람의 확산적 사고능력이 분배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F(1, 104)=4.79, p<.05$. 마지막으로 지위무관조건의 참여자들($M=4.52$)보다 지위유관조건의 참여자들($M=5.50$)은 분배를 할 때 창의성에 따라 분배가 더 좌우되었다고 응답했다, $F(1, 104)=18.15, p<.0001$. 따라서 지위관련성 조작은 성공

적이었다.

내집단에 분배한 점수

내집단과 외집단에 5회에 걸쳐서 각 100점을 분배한 점수들 가운데 내집단에 분배한 점수를 평균하여 종속 측정치로 삼았다. 성별사회정체성을 조작하면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동성으로 내집단을 구성하고 외집단은 이성으로 구성했다. 반면에 낮은 성별사회정체성조건에서는 내집단과 외집단이 각각 혼성으로 구성되었다. 내외집단의 이러한 성별구성에 포함되는 성별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2(집단의 지위)×2(성별사회정체성)×2(지위관련성)×2(성별 : 남/여)의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의 주효과를 포함하여 성별의 효과와 관련된 상호작용효과는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에는 성별의 효과를 제외하고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별로 내외집단에 각각 분배한 점수의 평균(표준편차)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또한 2(집단의 지위 : 고/저)×2(성별사회정체성 : 고/저)×2(지위관련성 : 지위유관/지위무관)의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의 지위가 높으면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보다 내집단에 점수를 더 많이 분배했다, $F(1, 104)=4.23, p<.05$. 그러므로 집단의 지위에 따른 효과를 설정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내집단의 지위가 평균상위 20%로 우수했기 때문에 내집단에 더 분배하는데 당연한 근거로 작동하여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집단이 저지위일 때보다 고지위이면 내집단편애의 분배가 정당화되기 쉬운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성별 범주에 의해서 집단을 구분했을 때도 최소집단 상황의 연구 결과(김금미·한덕웅, 2002)와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 결과는 집단간의 지위를 조작하여 내집단편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Sachdev와 Bourhis(1987, 1991), 그리고 Ellemers 등(1999)의 실증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따라서 최소집단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 범주를 이용한 집단간 관계에서도, 지위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할 때는 집단의 지위가 낮을 때보다 높으면 내집단편애가 높아

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1. 각 조건별로 내집단에 분배한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고 지 위		저 지 위		전 체
	지위유관	지위무관	지위유관	지위무관	
성별사회정체성 고	53.22 (5.03)	51.38 (3.23)	45.77 (5.39)	54.63 (2.49)	51.25 (5.32)
성별사회정체성 저	47.23 (6.51)	49.08 (7.21)	45.31 (6.25)	46.85 (3.89)	47.12 (5.96)
전 체	50.22 (6.46)	50.23 (5.37)	45.54 (5.72)	50.74 (5.10)	49.18 (5.99)

표 2. 집단의 지위, 사회정체성, 지위관련성의 삼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유의도수준	ω^2
집단의 지위(A)	1	113.40	113.40	4.23	0.0423	0.02
성별사회정체성(B)	1	444.47	444.47	16.60	<.0001	0.11
A*B	1	0.00	0.00	0.00	0.9910	0
지위관련성(C)	1	176.28	176.28	6.58	0.0118	0.04
A*C	1	175.24	175.24	6.54	0.0121	0.04
B*C	1	21.60	21.60	0.81	0.3714	0
A*B*C	1	196.63	196.63	7.34	0.0080	0.05

또한 집단의 지위와 지위관련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F(1, 104)=6.54, p<.05$. 이에 따른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에서 고지위조건일 때는 지위와 분배차원의 관련성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F(1, 104)=0.0, n.s.$, 저지위조건에서는 지위와 무관한 차원에서 분배하게 되면 지위유관조건일 때보다 내집단에 더 많은 점수를 분배했다, $F(1, 104)=11.97, p<.01$. 따라서 가설 2도 지지되었다.

분배점수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등분배의 기준(50 : 50)과 비교할 때 집단의 지위가 낮고 지위와 관련된 차원에서 분배를 할 때보다 집단의 지위가 낮고 지위와 관련되지 않은 차원에서 내집단에 더 분배한 결과라기 보다는 집단의 지위가 낮고 지위와 관련된 차원에서 집단의 지위가 낮고 지위와 관련되지 않은 차원보다 내집단에 덜 분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결과는 집단의 지위가 낮고 지위와 관련된 차원에서 분배를 할 때 현실을 수용할 명분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즉 지위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서 분배하게 되면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더 많거나 혹은 동등하게 분배할만한 근거가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낮은 지위의 집단 성원이 집단의 지위에 따른 자존심의 훼손을 상쇄하려 할 때 집단의 지위와 관련된 분배차원에서는 내집단편애를 보이기가 비교적 어려워져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실제 집단과 최소집단에서 일관되게 지위와 지위관련성의 상호작용이 지지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호작용의 원인은, Brewer와 Miller(1996)의 주장과 같이, 성별사회정체성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집단의 지위에 관련없는 상황에서 낮은 지위에 처한 집단의 성원은 오히려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집단 탈퇴의 동기를 지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에서 집단의 지위, 집단범주화 및 지위관련성의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104)=7.34, p<.01$.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서 단순상호작용 효과의 분석은 저지위조건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단순상호작용의 분석 결과를 보면 가설대로 저지위조건에서 성별사회정체성과 지위관련성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104)=6.51, p<.05$.

이 단순상호작용 효과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저지위 조건에서 지위에 관련있는 차원에서 분배하는 경우에는 성별사회정체성의 수준에 따른 분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104)=.006, n.s.$ 그러나 저지위 조건에서 지위에 관련되지 않은 차원에서 분배할 때는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내집단에 더 많은 점수를 분배했다, $F(1, 104)=17.61, p<.0001$.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따라서 가설 3-나 ①가설과 ②가설은 모두 지지되었고, 점추정과제를 사용하여 집단을 구분하는 최소집단을 이용한 선행연구(김금미·한덕웅, 2002)의 결과와 일관된다.

집단이 저지위에 속하고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는 비교적 개인정체화되므로 집단의 지위에 관련된 차원에서 분배를 하는지에 관계없이 낮은 내집단 분배를 보이지만,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 때는 집단의 지위에 관련

이 없는 차원에서 분배를 할 때 집단의 정적 자존심 추구의 동기가 나타나기 좋은 조건이므로 내집단 성원에게 분배를 더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Brewer와 Miller(1996)가 집단정체성에 따라서 집단의 지위가 내집단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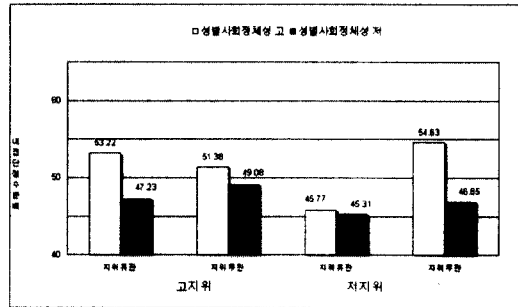


그림 1. 집단의 지위, 성별사회정체성, 지위관련성에 따른 점수 분배의 삼원상호작용

한편 고지위조건에서 가설과 일관되게 지위유관조건과 지위무관조건에서 모두 성별사회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내집단분배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지위조건을 포함하여 단순단순주효과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보면 고지위조건에서 지위에 관련된 특성에 근거하여 분배한 경우에는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 때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보다 더 많이 분배했다, $F(1, 104)=7.46, p<.001$. 또 고지위조건에서 지위에 관련되지 않은 특성에 근거하여 분배한 경우에는 성별사회정체성 수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104)=1.11, n.s.$ 이는 가설 3-가의 ①가설은 지지하지만 ②가설은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고지위 집단의 성원들은 지위무관조건에서 성별사회정체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최소집단을 사용한 선행연구(김금미·한덕웅, 2002)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최소집단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고지위 집단일 때 지위유관조건과 지위무관조건에서 모두 집단범주화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가설과는 다른 결과였다.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동등분배의 공정성규범이 강하게 작용하여

나타났다고 추론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들에게 의 미가 적은 최소집단 상황에서 내집단이 높은 지위를 점 하게 되었으므로 동등분배의 공정성규범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지위관련성 수준에 관련없이 집단범주화의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실제 집단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고지위/지위유관조건에서는 가설과 같이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내 집단에 더 많이 분배했지만, 지위무관조건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관되게 사회정체성에 따라 차이가 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알아보기 위 해 선행연구(김금미·한덕웅, 2002)에서 고지위/지위유 관/집단범주화($M=54.57$), 고지위/지위유관/개인범주화($M=51.57$) 조건의 평균을, 본 연구에서 고지위/지위관련/ 성별사회정체성이 높거나 낮은 조건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 고지위/지위관련/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은 조건일 때, 비록 내집단이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교차범주화로 인하여 성별관련 사회정체성이 약해지고 개인정체성이 비교적 강해져서 내집단편애 경향이 약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지위가 높고 지위무관조건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내집단편애 적이라는 삼원상호작용의 일부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실제 집단을 이용하여 범주화되었을 때에도 피험자들이 실험상황에서 보너스 점수가 주어지는 상황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동등규범을 사용하여 나타났 을 수 있다. 특히 실제범주를 사용한 본 연구에서 집단의 지위가 높고 지위와 관련되는 차원에서 분배하는 성 별사회정체성이 약한 조건일 때 선행연구의 해당 조건 과 비교해서 내집단 분배가 더 적은 결과는 공정성 규 범의 효과에 성별사회정체성이 약해진 효과가 가산적으 로 작동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이 공정성의 기준으로 형평 분배에 해 당하는 20 : 80보다 동등분배의 기준인 50 : 50의 분배 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자들(2002) 이 최소집단 상황에서 얻은 결과와 일관되지만, 실제 생활에서 중요한 범주로 집단간 관계를 형성하였을 때 와 최소집단상황 연구들에서 차이를 보인 연구 결과들 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집단을 이 용하여 범주화할 때 실제 생활의 범주를 집단간 관계로

설정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 서는 집단을 구성할 때 성별을 이용했지만 남성과 여성 의 집단간 관계로만 조작하지 않고 성별사회정체성을 별도로 조작하였다. 또한 과제도 성별고정관념이나 성 별에 따른 사회지위에 관련된 차원이 아니었다. 그러므 로 과제에 따른 지위의 차이는 바로 성별사회정체성에 귀인되지 않을 수 있다. 성별의 효과를 좀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은 조건, 즉 내집 단과 외집단이 성별집단간 관계가 되는 조건에서만 성 별×지위×지위관련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 에서 성별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점도 이러한 생각 을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위의 조작이 사회지위와 독립적 이므로 성별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분석했을 때 4원 상 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구조 를 볼 때 성별 지위차이가 있다고 지각될 수 있고(김금 미·한덕웅, 2001), 실험 연구에서 성별을 범주화에 이 용하였을 때 이러한 성별의 영향이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관련된 주효과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내집단편애는 내 외집단 성별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남성이나 혹은 여 성으로 구성된 동성집단이 이성의 외집단과 집단간 관 계를 형성하더라도 집단간 지위가 성별관계(혹은 성별 고정관념)와 무관하여 성별집단간 범주화가 점화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성별범주가 집단간 분배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이 실험과 달리 성별 고정관념이 작동되거나 집단간 경쟁이 유발된 조건이라 면 본 연구의 결과와 달리 성별에 따라서 내집단편애적 인 분배에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장래 과제로 남겨둔다.

한편 내집단이 남녀동성으로 구성되어서 성별사회정 체성이 높은 집단과, 혼성집단으로 구성되어서 성별사 회정체성이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내집단 편애효과를 부가적으로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에서 성 별사회정체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성별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녀가 혼성으로 구성되어서 성별 사회정체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외 집단에 속한 이성에게 제공한 점수보다 내집단의 이성 성원에게 더 많은 점수를 할당했다, $F(1, 51)=4.29$,

$p < .05$. 이 결과는 내집단이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내집단의 이성에 비교하여 외집단의 이성에 대해 차별을 보임을 의미한다. 성별과 집단 소속이 독립적으로 조작된 경우에 성별의 효과가 나타나는 본 연구에서 얻은 이 결과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반복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되었는데 대학생들은 일반 성인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아서 비교적 덜 고정관념적이고 남녀 평등 의식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남녀차별의 경험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 이외의 집단에서 동일한 설계를 연구하여 어떤 조건에서 더 내집단편애적이고 덜 공정한 분배를 하는지 장차 알아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금미 · 한덕웅 (2001). 여성의 성별 사회정체성과 남녀 간 경쟁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15-38.
- 김금미 · 한덕웅 (2002). 집단의 지위, 집단범주화 및 지위 관련성이 집단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2), 147-171.
- 한덕웅(2002). *집단행동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Branscombe, N. R., & Wann, D. L. (1994). Collective self-esteem consequences of outgroup derogation when a valued social identity is on tria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 641-657.
- Brewer, M. B., & Brown, R. J. (1998). Intergroup relation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554-594). McGraw-Hill.
- Brewer, M. B., & Miller, N. (1996). *Intergroup Relation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Brown, R. (2000). *Group Processes: Dynamics Within and Between Groups*: Blackwell publishers.
- Ellemers, N., Doosje, B., Van Knippenberg, A., & Wilke, H. (1992). Status protection in high status minority 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23-140.
- Ellemers, N., Kortekaas, P., & Ouwerkerk, J. W. (1999). Self-categorization, commitment to the group and group self-esteem and related but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371-389.
- Jetten, J., Spears, R., Hogg, M. A., & Manstead, A. S. R. (2000). Discrimination constrained and justified: Variable effects of group variability and in-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 329-356.
- Jetten, J., Spears, R., & Manstead, A. S. R. (1996). Intergroup norms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Distinctive self-categorization and social ident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222-1233.
- Karasawa, M. (1991). Toward and assessment of social identity: The structure of group identification and its effects on ingroup evalu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293-307.
- Mackie, D. M., & Smith, E. R. (1998). Intergroup relations: Insights from a theoretically integrative approach. *Psychological Review*, 105, 499-529.
- Mullen, B., Brown, R., & Smith, C. (1992). Ingroup bias as a function of salience, relevance, and status: An integr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03-122.
- Paéz, D., Martínez-Taboada, C., Arrospe, J. J., Insúa, P., & Ayestaran, S. (1998). Constructing social identity: The role of status, collective values, collective self-esteem, perception and social behaviour. In S. Worchel(Ed), *Social Ident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211-229). Thousand Oake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 Reichl, A. J. (1997). Ingroup favouritism and outgroup favouritism in low status minimal groups: Differential responses to status-related and status-unrelated measur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617-633.
- Sachdev, I., & Bourhis, R. Y. (1987). Status differentials

-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 277-293.
- Sachdev, I., & Bourhis, R. Y. (1991). Power and status differentials in minority and majority group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24.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7-24). Chicago : Nelson-Hall.

Effects of inter-group status, gender social identity and status-relevance on in-group favouritism

Keum-Mi Kim and Doug-Woong Hah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social identity and status-relevance in reward allocation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up status and in-group favouritism through a laboratory experiment. A three-way interaction effects among inter-group status, gender social identity, and status-relevance in reward allocation were hypothesized. Specifically, it was hypothesized that, when ingroup status is high, in-group favouritism would be stronger in the high gender social identity condition than in the low gender social identity condition regardless of the status-relevance in reward allocation dimensions. In contrast, when group status is low, the difference in amount of the allocated rewards between the two gender social identity conditions would be determined depending on the status-relevance - namely that in the status-irrelevance condition in-group favouritism would be stronger in the high gender social identity condition than in the low gender social identity condition, but there would b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ender identity conditions in the status-relevance con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a partial support for the three-way interaction hypothe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The significan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mentioned.

Keywords : ingroup favouritism, inter-group status, social identity theory, gender social identity, status-relevance, reward allocation